

# 수익성과 생존만이 전부가 아니다: 리더들은 리드를 해야 한다



## 정

치와 경제의 영향은 현재의 리더들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나가는데 있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추세는 리더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영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은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이다. 확실한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역경을 딛고 회사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압박 경영을 극대화하고 회사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넓히는 것은 불안정한 경제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대규모 기업의 CEO는 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저 상식일 뿐만 아니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생존성과 유동성이 것이다.

이 CEO는 또한 “회사가 불황 시기에 시장 점유율이 낮아 지거나 운영 자금이 고갈되면 경제가 회복된 후에 마케팅이나, 광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채용할 여유가 없게 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점유와 운영자금의 고갈은 회사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던 간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긴축 경영, 현재의 자본의 감소 없이 수입증가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장기적인 안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라고 한다.

리더십을 단기적 비즈니스 생존, 자본 보호와 일자리 유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유지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 단기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이 행해져 왔는데, 이것은 리더들이 수령에 깊이 빠지지 않고 생존하려고만 하고 장기적인 안목은 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리더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인식해야 할 시기이다. 생존성은 긴축 경영, 수익 창출, 자금 유지에 달려있다. 수익을 만들 줄 아는 기업 리더는 생존할 것이고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되며 그들 회사의 생존을 보장한다.

불황이 오래 갈수록 소비자들은 더욱더 지출을 안 하게 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지출을 하기 전에 그 동안 쌓여있던 채무를 먼저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격동의 시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리더들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출에 신경 쓰며 시장 점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게 직원들의 능률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미래에 초점을 맞춘 용이한 생존 전략이 있다.

## 모두의 생각을 바꿔라.

운영자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긴축하는 모든에서 수익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모드로 바꿔야 한다. 직원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므로 그들이 절약이나 판매와 수입의 증대까지 모든 것에 관여해야 한다. 회사 생존에 관여하도록 격려해 주면 그들은 주인정신을 갖고 개인의 생존보다 기업 생존에 기여하는 팀이 될 것이다.

## 직원들의 효율을 높여라.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요소와 업무상의 혼잡함을

작업장에서 제거하고 재구성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시간은 돈이고, 직원들은 커다란 투자이다. 혼잡함은 직원들의 생산성과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방해가 된다.

## 조직 구성을 업그레이드 해라.

조직과 완전히 응화하고 철학적인 것까지 직원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19세기 뉴턴의 피라미드식 조직을 없애고, 거미줄 모양과 같이 중앙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모두 연결되고 생산성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바꿔야 한다. 직원들은 연관이 있고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다.

## 리더들은 리드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번 생존을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착수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큰 그림과 경제가 회생된 후에 있을 회사의 위치에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게 해라. 리더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장기적인 미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없애라.

리더라는 것은 보통의 시간에도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이런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최대한으로 팽창된다. 이렇게 시끄러운 시간 동안에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계획하여 정신적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좌뇌가 창조적인 우뇌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서 온다. 우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이러한 불황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리더들은 기존의 자금을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생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타개 방법은 창조성에서 나온다. 창작적인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클래식 음악이나 뉴에이지 음악 감상, 조용한 자연을 걷기나 명상 등을 통해 우뇌에 활기를 넣어줘라. 만약 책상 앞에 불잡혀 있다면, 몇 분 동안만이라도 창의적인 상상을 해봐라.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해라. 상상을 할 때는 숨을 깊이 쉬는 것을 잊지 마라. 정신이 맑아지고 창조적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더라면 비전과 사물을 조정할 수 있는 창조적인 노하우를 갖춰야 하고 회사내의 모든 사람을 각각의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 리더는 반드시 19세기의 방법이 아니라 21세기에 맞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리더십은 오늘의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내일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수익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자금이 바닥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경제 회복시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놔야 한다. otc